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1.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씨가 있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 씨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처럼 모든 것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다.
(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세계 곳곳의 삼림이 파괴되어 가뭄,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해지고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 파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 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자연을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 ③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④ 자연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자연을 필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 사람의 정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보 소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따라서 비용 지불 능력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은 정보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지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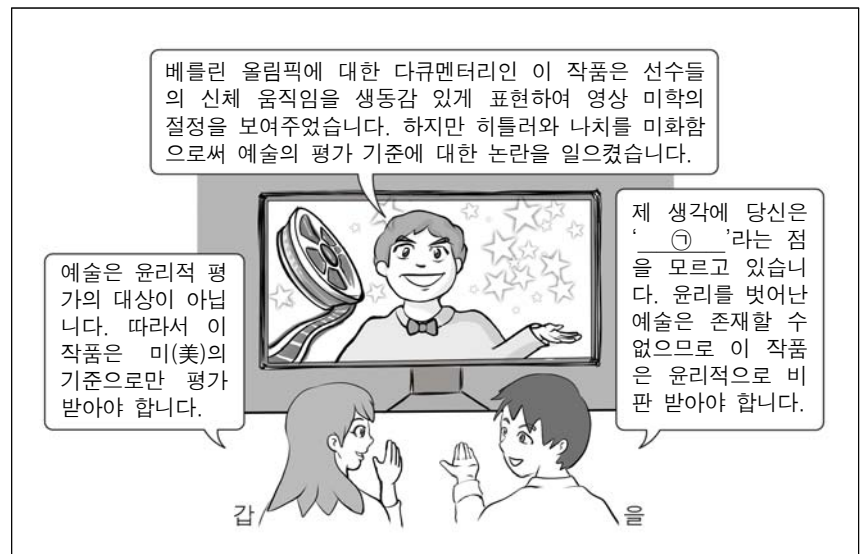
- ① 정보 창작자의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 ② 정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가?
- ③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가?
- ④ 정보를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아야 하는가?
- ⑤ 정보의 사유화는 자유롭고 공평한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가?

3. 다음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에는 단 하나의 책임이 있다. 즉 게임의 규칙 안에서 사기나 부정이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기업의 임직원들은 주주의 피고용인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만 봉사해야 하며, 사회에 대한 기부는 기업이 아닌 개인들의 몫이다.

- ① 기업 활동의 본질은 이윤 극대화이어야 한다.
- ② 기업은 법을 준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 ③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자기 이익 추구가 되어야 한다.
- ④ 기업은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자선 활동에 힘써야 한다.
- ⑤ 주주 이익을 감소시키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금지해야 한다.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별개의 영역이다.
- ② 예술을 위한 예술은 도덕적 무책임을 조장할 수 있다.
- ③ 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 ④ 예술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다.
- ⑤ 예술에 대한 검열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5.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 퍼즐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현대 사회의 윤리적 허무주의는 종교적 믿음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선한 삶을 위해서는 신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인간에게 윤리적 삶을 명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 존재가 부인되면 윤리적 신념의 객관적 기초도 사라지게 된다.																				
(나)	<table><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가로 열쇠] (A):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 (B): 아름다운 덕성. 악덕(惡德)의 반대. 양보의 ○○ [세로 열쇠] (A): 개념								(A)				(B)								
		(A)																			
	(B)																				

< 보 기 >

- ㄱ. 종교적 가르침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 ㄴ. 신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 ㄷ. 초월적 존재를 행위 정당성의 기초로 여긴다.
- ㄹ. 신명(神命)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가) 과학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으며, 과학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과학자는 오로지 자연을 탐구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과학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지만 연구 대상의 설정과 활용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면, (가)는 ㉠ 과학이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 과학자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연구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 과학의 활용에 대해 윤리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며, ㉣ 과학자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 (가), (나)는 모두 과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치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2.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 부자에게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은 재화는 재능을 가진 자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3. 제 생각은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은 사회적 자원이므로 재능이 많은 자들은 재능으로 얻은 재화 중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당신은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① 재능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② 재능으로 얻은 재화의 사적 소유가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③ 재능을 개인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④ 재능을 가진 자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된다.
 ⑤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삼는 것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가 된다.

8. (가), (나)의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사실 과학이다. 도덕은 사회적 관습에서 비롯되므로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보고 사실적·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을 연구하는 실천 철학이다. 도덕적 행위에 관한 보편적 원리의 발견을 위해 윤리학은 우리의 행위 기준을 성찰하고 비판해 그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

< 보 기 >

- ㄱ. (가)는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중시한다.
 ㄴ. (나)는 윤리적 진술은 당위적 진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보편적 도덕규범 정립을 핵심 과제로 본다.
 ㄹ. (가), (나)는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9. 다음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일반 시민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어야 하므로 사형을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 ① 개인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전적으로 양도해야 하는가?
 ②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응분의 보복인가?
 ③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것인가?
 ④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사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한가?
 ⑤ 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인가?

10.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① (가)는 자유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의 확대를 강조한다.
 ② (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인권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라고 본다.
 ④ (나)는 (가)에 비해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⑤ (가), (나)는 사회적 특수성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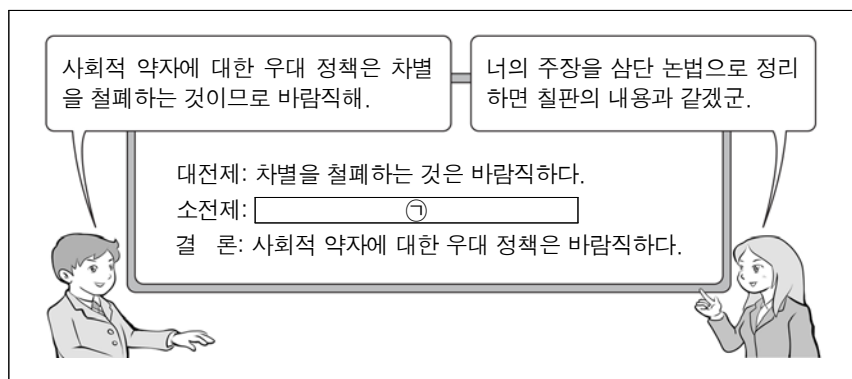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배아는 체세포의 유전 정보를 제공한 자의 소유물일 뿐이므로, 배아를 만든 자의 의도에 따라 처분될 수 있고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아가 파괴되어도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을: 배아 연구가 허용됨으로써 생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유전적 조작을 시도하려는 우생학이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배아를 다루는 규범적 한계는 인간을 도구로 만들기를 거부하는 인류 공동체의 도덕적 요구로부터 나온다.

- ① 갑은 배아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을은 배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효용성에 의해 배아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공동선 실현을 위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고 본다.

12.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② 우대 정책은 과거로부터 지속된 차별의 철폐에 기여한다.
- ③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 ④ 우대 정책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의 구현에 도움이 된다.
- ⑤ 우대 정책을 통해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이 시정될 수 있다.

13. (가)의 입장에서 (나)의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작용[用]은 양(陽)의 기운에 속하고 본체는 음(陰)의 기운에 속한다. 그러나 움직임과 고요함에는 끝이 없고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는 시작이 없으니 앞과 뒤로 나눌 수 없으며 서로를 바탕으로 삼는다.
(나)	갑이 도착하면 을은 갑에게 읊(揖)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잔을 합해 입을 가시니, 서로를 존중하여 친해지려 함이다. 이를 가리켜 합근례(合斟禮)라 하는데 남녀가 ㉠이/가 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

- ① 향렬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위계를 세워야 한다.
- ②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 ③ 장유(長幼)를 기준으로 하여 우열(優劣)을 정해야 한다.
- ④ 동기간(同氣間)임을 알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서로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적 대우를 인정해야 한다.

1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나는 형제이고, 사촌이고, 손자이고, 이 가게와 저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 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히 인간에게 부여된 특성들이 아니며,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특성들도 아닙니다. 또한 나의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책무와 의무를 정합니다. 즉 개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아로서의 위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 보 기 >

- ㄱ.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한다.
- ㄴ.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와 무관한 상태에서 형성된다.
- ㄷ. 공동체가 개인의 삶 속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
- ㄹ. 공동체로부터 획득된 덕의 실천이 선한 삶의 토대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서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천부적 재능도 이를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을: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려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나)	

< 보 기 >

- ㄱ. A: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선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 ㄴ. B: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 ㄷ. C: 정신적 쾌락과 감각적 쾌락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 ㄹ. D: 최대 행복 원리에 의한 효용이 도덕의 기초가 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을 일부 기관의 기능 파괴로부터 세포 활동 정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과정으로 보면 정확한 시점을 정할 수 없어 사회가 혼란해지므로 죽음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을: 찬성합니다. 다만 세포 활동 정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죽음은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정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뇌 기능 정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인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므로 자발적 호흡이 멈출 때까지 생명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① 뇌 기능 상실을 인간 생명의 완전한 정지로 보아야 하는가?
- ② 심폐 기능이 정지되는 시점을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죽음 여부의 판단을 위해 죽음의 시점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가?
- ④ 일부 기관 기능의 완전한 상실만으로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⑤ 신체 기능이 아닌 세포 활동 정지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1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사치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높은 상품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현상이 심각해진다면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 ... (후략)...

- 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절제된 소비를 행해야 한다.
- ② 제품의 상업적 이미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사치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상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 ④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를 위해 유행을 따라 소비해야 한다.
- ⑤ 상품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말고 과시적 소비를 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 설득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합리적 설득에 강제적 수단이 추가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집단 갈등의 해결은 개인의 이성과 양심만으로 충분하다.
 ㄴ. 사회 정의를 위해 집단 간 힘의 비율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ㄷ. 집단의 도덕성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
 ㄹ. 갈등 해결을 위한 외적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동물 실험은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처럼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해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을: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에게	비판 내용
①	갑	을	동식물이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어.
②	을	갑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모르고 있어.
③	을	병	모든 생명체가 자기 고유의 삶의 목적을 지님을 모르고 있어.
④	병	갑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함을 모르고 있어.
⑤	병	을	동식물에 대한 배려가 인간의 직접적인 의무임을 모르고 있어.

20. (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관용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강제를 정당화하거나, 지배 세력의 시혜(施惠)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용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한다.
(나)	관용을 실천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A 

- ① 어떤 가치라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 ② 관용의 한계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자의 입장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 ④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관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⑤ 관용이 비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도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